1. 고교 졸업 후 학업 성취 경험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법과대학 4년 동안 수석과 사법시험 응시>

법학과에 입학하면서 전공분야만큼은 최고가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초심이 매학기 성적우수 장학금을 받고(+인문100년 장학금), 전체평점 4.35/4.5으로 법학부생 325명 중 ‘수석’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학부수업을 교과과정에 따라 기본3법 위주로 수강하면서 후4법을 충실히 이수했고, 특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을 수강함으로써 민사법을 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노력했습니다. 특히 민사소송법 시간에 모의재판의 대리인이 되어 직접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 법문서를 작성해 송무 업무 관련 서면작성능력을 연마한 것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이수한 141학점 중 법학전공을 90학점 이상 듣고 조기졸업이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법학전문대학원 공부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을 충실히 대비하기 위해 법학공부를 위해 2학기에도 강의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시반에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공부한 노력 덕분에 사법시험에서 민법 78점, 형법 80점, 국제법은 25문제 중 23문제를 맞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법학을 성실히 공부하면 변호사 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은 것이 큰 수확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법 공부를 바탕으로 실제 권리실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보이스피싱으로 손해를 입자 범죄에 가담했던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이후 확정 판결에 기해 강제집행을 신청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 없이 나홀로 소송이었지만 간접적인 실무경험을 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재산명시신청을 하기 앞서 채권에 대한 압류신청을 해야한다는 점 등 실정법과 실무가 달리 운용되는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아 법조인은 정말 꼼꼼하고 성실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타국의 문화와 언어에 관심이 많아 학교 강의에서 관련 강좌를 많이 수강했습니다. 영어는 물론이고 처음 배우는 스페인어나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해 A+라는 월등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언어에 대한 관심과 외국어학습능력이 스리랑카, 중국, 베트남, 일본 등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정 사람들과 스스럼없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었습니다.

2. 고교 졸업 후 학업 이외 자기개발을 위해 수행한 노력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학창 시절 외국 학교에서 길을 잃었을 당시 현지인 친구가 자신의 수업을 빠지면서까지 제 교실을 찾아준 기억 때문에 저를 당혹감에서 구해준 외국인친구에 대한 보답으로 한국에 와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외국인들과 친구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 정부부처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하지만 비효율적인 중복지원이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한국인들이 그들을 한국인으로 여기지 않는 인식의 불일치를 느꼈습니다. 대학재학 중 ‘다문화 문화 봉사회’ 활동을 하며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다문화가족들과 합창단을 결성하고 매주 연습해 청계천에서 열린 서울문화의 밤 행사에 참가하기도 하고, 필리핀배우자협회의 행사에 참석해 아이들과 노래를 따라 부르며 봉사를 했습니다. 베트남어, 중국어, 태국어 등 각국의 언어, 노래 배우기 시간을 가지고, 제과제빵, 미용, 네일 아트 등의 전문가를 모셔 함께 기술을 배우는 활동을 통해 사회일원으로서 소속감과 유능감이 커졌고 우리는 모두 똑같은 친구라는 마음으로 더욱 친밀해졌습니다. 친해지면서 다문화가정이 겪는 현실적 문제들, 무능한 한국인 배우자가 이주여성에게 의존하는 경제활동문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겪는 한국어 사용 미숙문제와 그로 인한 학교 부적응 문제, 정체성혼란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주여성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대부분 같은 지역 출신 동포들에게 의지하게 되는데 법률지원 등 고차원적인 도움의 필요성이 있을 때 그들을 이해하고 같은 편이 되어줄 수 있는 법조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에서 겪게 되는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금 청구, 운전면허와 관련된 과태료 처분 등 일들이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막막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법을 잘 알지 못해 위법인지도 모르고 위법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면서 외국인근로자에게 법률상담을 해줄 수 있는 법조인의 중요성을 실감했습니다.

작년에 국립외교원에서 주최한 ‘모의 국제회의’에 참가했습니다. 영어로 진행된 회의의 주제는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로힝야족 문제였고, 저는 말레이시아국 대표가 되어 로힝야족의 인권을 옹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미얀마국을 대표한 참가자가 자국은 난민협약 등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이 아니라서 로힝야족을 수용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저는 국제법 지식을 활용해 UN헌장과 ASEAN헌장에 따라 회원국으로서 인권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동남아국가, 중국, UN 등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사안이었지만, 사전조사를 성실히 한 덕분에 국립외교원 교수님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고, 국립외교원장으로부터 우수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힝야족 문제를 공부하며 이민족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가 한 사회에 혼란과 분열을 초래한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3.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원동기 및 졸업 후 진로 등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현재 우리나라에는 외국인 230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 앞으로 외국인 300만 명 시대가 도래 할 것입니다. 유럽, 미국, 미얀마의 문제를 보면 외국인에 대한 한 사회의 태도가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짓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방인에 대한 친절을 넘어 내국인이 등한시하는 3D업종과 농촌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이들에게 같은 법의 테두리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에 방청을 가도 외국인 관련 사건이 현저히 증가했다는 것을 느끼는데 외국인이 당사자인 민사, 형사사건에서 정확한 정보 전달로 불이익을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은 언어가 통하지 않는 낯선 타국이라는 이유만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쉽고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에도 방법을 몰라 정당한 법률적 대응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당한 법률적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이익을 받은 채로 자국에 돌아간다면 한국이라는 국가뿐만 아니라 한국의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고 봅니다. 한국인에겐 너무도 당연한 법률문제로도 막막해하는 외국인에게 도움을 주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변호사가 된다면 외국인근로자가 주로 거주하는 경기도, 고려인이 많은 광주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거나,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에 근무하며 법률상담을 해주고 싶습니다. 또는 경찰청 외사계에 근무하며 외국인이 관련된 사건의 법률상담을 해주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은 주정차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조차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관련 법을 알기 쉽게 강의하는 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면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 봉사를 하며 외국인에게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